

올해부터 종자 보급되는 장류 · 두부용 콩 신품종 ‘천상’

김 현 태 신소재개발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생산자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콩의 특성

콩은 우리나라 3대 식량작목의 하나로서 오랜 재배 역사를 통하여 장류, 두부, 콩나물 등의 재료로 이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해마다 한 사람 당 8~9kg을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콩의 다양한 이용방법 중 장류용으로 가공을 하거나 콩자반 등 소비자들이 직접 이용하는 콩은 알이 굵고 색택이 좋으며 배꼽색이 없는 콩을 선호한다. 그러나 생산자의 입장에서 알이 굵으면 콩알이 잘 튀기 쉽고, 콩이 익은 후 콩대의 윗부분이 무거워져 잘 쓰러진다. 또 배꼽색은 병과 재해에 강한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병과 재해에 강하면서 알이 굵고, 색택이 좋은 다수성 품종을 육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태광, 대원 등 종자가 굵고 외관특성이 좋은 품종이 많이 보급되었으나 병이나 재해에 약한 단점이 있었다. 병에 강하고 쓰러지지 않으며 소출이 많은 대풍, 남풍 등은 콩알이 작고 색택이 좋지 못하여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에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콩품종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알이 굵고 색택이 좋으면서도 병과 재해에 강한 콩 ‘천상’을 육성했으며, 국립종자원에서 종자증식의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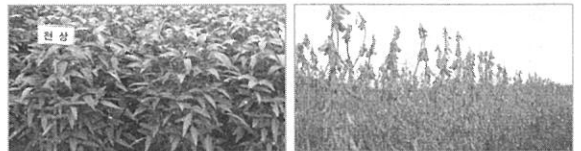
병해와 쓰러짐에 강한 콩 ‘천상’

‘천상’은 콩이 익은 시기가 태광콩보다 2~3일 늦은 만숙종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험 재배한 평균 수량이 10a당 234kg으로 태광콩과 비슷하다. 그러나 태광콩과 달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불마름병 등에 강하여 밭에서는 전혀 병이 발생하지 않고 쓰러짐에 강하다. 콩알이 굵어 100알의 무게가

24.8g으로 태광콩보다 2g정도 더 무거우면서도 수확기에 콩알이 잘 튀지 않는다. 콩알은 배꼽색이 없으며 알이 등글고 황색으로 색택이 좋다. 재배상 유의할 점은 논이나 배수가 나쁜 곳에서는 이랑을 높게 하는 등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습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꼬투리가 익어도 잘 튀지는 않지만 콩알이 굵으므로 적기에 수확을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신청 가능

‘천상’은 국립종자원(www.seed.go.kr)에서 지난 3년간의 종자증식을 거쳐 지난해 10톤의 보급용 종자를 생산하였으며, 올해부터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농가에 공급하게 되었다. 종자 분양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분양 종자량은 5kg 단위로 25,000원에 분양할 계획이다. 1차 분양에서 남은 종자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차 분양을 하며 분양신청을 받은 종자는 4월 1일부터 공급한다. 지난해 천상의 보급종 종자는 경북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1차 분양은 주로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2차는 전국을 대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



▲ 꼬투리 형성기 생육과정

▲ 성숙기 생육과정



▲ 불마름병 발생 비교

▲ 종자크기 비교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3년 2월호〉